

발간등록번호	11-1060020-000171-01
연구보고	2004-13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

2004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213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 성 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발간등록번호	11-1060020-000171-01
연구번호	2004-13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학제적 연구

2004. 8.

연구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기간 : 2004. 4. 20. ~ 2004. 8. 19.

연구책임자 : 김광익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최재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한경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부 교수)

김수정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순영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배은경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본 연구는 여성부의 용역과제로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부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 성 부

· 호주제가 가족의 생계유지와 부양 방식에 끼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노동시장, 조세제도, 복지체계의 세 문제영역을 설정하고, 법률시행령·행정지침 등 관련 문서자료와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문헌 연구를 병행 실시함.

· 사회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의 근거를 폭넓게 구성함.

2. 연구의 내용

II. 국가-사회의 관계 속에서 호주제가 가족문화에 미치는 영향 : 비교학적 접근

□ 이론적 전제

· 2장에서는 유교적 전통을 사회구조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세 사회를 비교학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사회-가족과 호주제의 관계를 고찰하였음.

·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호주제가 해방 후에도 존치된 이유는 분단과 전쟁, 폐허, 국가 재건으로 이어지는 급박한 현대사 속에서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해 온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임. 유교전통의 가족 이념과 제도는 국가가 당면한 상황에 적응하는데 적절한 기제를 제공하는 점이 있었으며, 연좌제 등 정치적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호주제가 행정적으로 필요하기도 했음. 호주제 존치 상황 속에서 가족은 국가를 위한 문화적 기제로서 중시되는 동시에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이고도 모순적인 입장에 놓여왔음.

□ 호주제와 우리 전통과의 관계

· 현행 호주제는 일제가 가족을 국가권력의 통제의 대상이자 단위로 만들기 위하여 종래 조선시대에 전통으로 확립되었던 유교 종법제도를 변경하여 만든 제도로서,

전통적인 호, 호주 개념과 다름. 현행 호주제는 혈연에 기반하여 인식되는 탈공간적 관계의 망에 의하여 성립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호(戶) 개념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가(家)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조선조의 호주제와는 구분되어야 함.

□ 한·중일의 가족제도와 관행

· 한국에서 유교적 종법 체계가 관행적으로 정착된 것은 조선조 중기 이후의 일로 역사가 300여 년에 불과함. 조선조에서 부계율에 의한 적장자의 설정은 제사를 장남에게 상속함으로써 재정적인 뒷받침이 장남에게 주어져야 했던 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즉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이 밀접히 연관되어 장남과 그 아들로 이어지는 가계계승의 원칙을 만들어냈던 것임.

· 전통시대의 중국에서는 종법체제나 조상숭배가 특정 신분에게만 폐쇄적으로 허용되는 특권적 제도가 아니었음. 누구든지 조상을 위한 사당과 위토와 종족 공독묘지를 장만함으로써 그 조상을 정점으로 하는 종족을 성립시킬 수 있었음. 반면 조선조 한국에서는 일반 백성이 종족의 시조가 되어 거창한 제례를 행하는 것이 국법상 불가능했음. 즉 유교문화 자체가 이미 특정 엘리트 신분계급의 특수문화로 실천되어 왔던 것이며, 부계율에 따른 종법제도가 국가 이념의 차원에서 강요되었던 맥락을 이해해야 함.

· 한국의 가족친족관계가 혈연을 중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개인이 경제적 단위로서의 이예(家)를 떠나면 이전의 가족관계와 절연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됨. 이성불양(異姓不養)의 원칙이 없으며 사위를 입양하기도 함(婿養子). 여자가 시집가면 시집의 성으로 바뀌는데 서양자로 들어간 사위도 처가의 성으로 바꿈. 따라서 일본에서는 동일 조상의 자손임에도 성이 다른 사람들이 많으며, 이러한 관행은 전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음.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오직 부계로 이어지는 조상에 대한 제사가 불가능함. 메이지 시대에 남자본위, 적출본위, 장자본위의 가독상속(家督相續)을 기본으로 하는 호주제가 법제화되었으나, 2차대전 이후 폐지되었음.

□ 호주제에 대한 비교학적 관찰

· 조선조 사회에서 혈통에 대한 절대적 신앙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지위로서의 '양반'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발생했음. 현대에 와서 사회적 경제적 기회가 남성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남계친 호주제에 대한 신앙이 더욱 강화되기도 했음.

·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식의 호주제가 없으므로 가족의 법적인 구성이 다양해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와해되거나 사회질서 체제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임.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기존의 가족 유형이 첨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흔히 해체 또는 와해라고 말해지는 현상은 사실은 가족이 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적응기제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것임.

· 라이프스타일이나 삶의 가치, 그리고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새로운 현실을 담아내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호주제를 존치함으로써 엄연한 문화변동의 현실을 공식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임. 이로 인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상상의 경험에 의존하여 전통적 제도에 스스로 집착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호주제는 빠른 시일내에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III. 한국 남성이 경험하는 호주제의 의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적 측면

□ 연구의 전제 및 방법

· 호주제는 흔히 '여성의 문제'만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남성 역시 무제는 다르더라도 호주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호주제의 폐해와 관련된 논의들 남성, 여성, 자녀 등으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단위로서의 가족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안에 있는 남성의 경험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호주제가 한국 남성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면서 일상에 작용하고 표출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12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음.

□ 조사연구 결과

· 남성들은 호주제를 상징적 의미나 명분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남성들도 호주제와 관련된 구체적 피해사례를 가지고 의견을 물었을 때는 폐지에 호의적이었음.

·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준거하는 가족의 이미지는 소위 '정상 가족'의 그것임. 호주제가 전제하는 가족상은 현실 가족의 모습과 괴리되어 있지만, 남성들은 이미 그들의 일상수준에서 너무도 익숙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함.

· 호주제가 기초하고 있는 장남직계가족 규범은 소자녀화 및 핵가족화 추세를 보이는 한국가족의 현실과 부조응함. 본 조사에서 면접한 장남들은 호주=장남=가장이라는 개념 위에서 장남으로서의 규범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양가적 측면을 나타내었음.

· 한국사회에서 재혼가족은 성이 다른 아이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특히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게 됨. 호주제의 폐해에 대한 논의는 이·재혼 가족의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음. 본 조사에서 재혼 가족에 속한 남성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더욱이 편부 가족의 가족관계적 취약성이 더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들 가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제언 및 폐지의 효과

기반을 잃어가고 있으나, 남성 가장(家長)과 그의 식솔을 돌보는 전업주부 여성이라는 호주제의 가족 이미지가 여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가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제도적 지체 현상과 경제관행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음. 5장에서는 조세 제도, 특히 소득세제와 부부재산제를 중심으로 호주제가 일반인의 경제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소득세제를 둘러싼 정책적 쟁점들

· 소득세는 국민 개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며, 그 과세원칙은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가진 입장과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임.

· 용능부담의 원칙, 누진과세의 원칙과 아울러 과세 단위 문제가 소득세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정책적 쟁점임. 특히 소득과 저축, 재산형성 및 소비와 같은 일반인의 경제생활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세 단위를 개인으로 할지, 부부나 자녀를 합산하는 가족단위 과세를 할 지가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 됨.

· 우리나라는 개인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과세를 해 오다가 2002년 8월 위헌결정에 따라 다시 개인단위 과세로 통일되었음. 종래의 부부합산과세는 부부 각자가 자산소득을 가진 경우 모두를 인위적 자산분산 사례로 보아 중과세한 것으로, 이는 호주 한 사람이 가족재산의 소유자라고 하는 호주제의 가족 이미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었음. 그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자산을 형성한 기혼 여성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음. 이는 호주제가 여성의 재산권 행사에 악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임.

□ 호주제와 부부재산제의 관계

·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의 개인별 과세와 부부별산제는 얼핏 부부 각자가 경제생활을 하고 각자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처럼 보이나, 호주제의

가족 이미지가 가족생활과 경제적 관행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남녀차별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

· 현재의 부부별산제 하에서 명의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본인 명의의 부부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명의가 없는 배우자는 재산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누가 어떻게 부부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관계 없이 일단 남편의 명의로 해 두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음. 이는 남성을 가장, 즉 가족의 우두머리이자 가족자산의 소유자이며 계승자로 보는 호주제의 가족 이미지가 일반인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으로, 호주제가 여성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소득공제와 '세대주'의 지위

·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소득공제 제도는 최저생활비 면세원칙과 여타의 정책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기본공제의 배우자공제와 공제대상 부양가족범위는 호주제적 가족을 전제로 함으로써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추가공제의 부녀자공제 및 양육비공제가 여성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에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호주제적 가족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음.

· 가족간의 경제적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경제적 특혜가 있으나 이는 세대 내에 호주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호주와 같은 사람이 세대주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호주에 대한 특혜와 같음.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하지 않고서는 기혼여성도 호주가 되는 경우가 없는 현행 호주제의 현실에서 이같은 호주/세대주 우대는 여성들의 재산형성과 독립적 경제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초래함.

VI. 호주제의 한국 복지체계에 대한 영향: 기초생활보장, 모자복지,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 6장은 복지제도와 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의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체적으로 호주제적 구조와 특성, 가족범위 및 경계가 어떤 방식으로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특히 호주제적 가족관념이 특히 드러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장과 입양아동문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호주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족' 개념의 연관성

·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계보장을 해야하는 공공부조가 호주제적인 가족 관념에 의해 왜곡되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모자가정과 '출가한 딸' 규정이 실제 가족과 호주제 법 상의 가족 개념 간의 괴리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하였음.

· 모자가정은 사회보장의 기본단위인 독자적인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계혈통의 질서에 따라 시가와 친정을 오가는 친족단위 속에 재편입된다는 점에서 호주제적 가족관념을 읽을 수 있음.

· '출가한 딸'의 경우 여전히 남편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호주제의 남계중심적 가족관념의 영향력을 보여줌.

□ 호주제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 호주제로 인해 복지적 권리가 왜곡되고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범주인 저소득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입양아동의 문제를 살펴보았음.

· 저소득모자가정은 법률적으로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호

주제적 가족제도와 문화는 모자가정의 복지필요를 '요보호 여성'의 범주나 빈곤정책의 하위범주로만 포섭할 뿐, 독자적인 가구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있음.

· 배타적 혈통주의적인 호주제에 토대하고 있는 한국복지체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소년소녀가장과 요보호아동과 같이 '정상적' 가족의 울타리에 포함되지 못하는 아동들임.

□ 한국 가족주의적 복지체계의 호주제적 기초

· 한국사회 복지구조의 호주제적 특성은 가족주의 혹은 가족중심적인 여타 서구 복지국가와 다른 종류의 특수한 가족주의적 복지체계를 재생산하고 있음.

· 한국의 가족주의 복지체계에서는 부계혈통 및 가계계승의 우위 하에 '여성이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고 있음.

· 관계보다는 혈통과 존수를 중심으로 한 가족개념은 가족의 경계와 범위에 집중하면서 안으로는 위계적인 동시에 밖으로는 배타적인 개념임. 이러한 가족개념은 실질적으로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하며 오히려 가족에 의한 복지에 의존하고 있음.

· 호주제에 의해 중층결정된, 혹은 호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족 개념 및 정책의 총체적 재점검이 요청됨.

VII. 호주제 폐지와 한국 남성의 삶: 사회생물학적 접근

□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부계혈통주의의 모순

· 부계혈통주의의 생물학적 비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자연계에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호주제가 없으니 인간사회에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당위성을 의미하는 것은

〈 차 례 〉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3
II. 국가-사회의 관계 속에서 호주제가 가족문화에 미치는 영향 : 비교학적 접근	김 광 역 5
1. 머리말	5
2. 이론적 전제	8
3. 정치적 맥락에서의 가족 개념과 이념	9
4. 가(家)와 호(戶)의 개념	11
5. 가족(호주제) 속의 남자와 여자	13
1) 한국의 경우	13
2) 중국의 경우	16
3) 일본의 경우	21
6. 호주제에 대한 비교학적 관찰	23
1) 호주제의 폐지가 전통적 사회질서 체제를 와해시키는가?	23
2) 핏줄에 대한 제도와 상징의 사이에서 호주제를 보자	27
7. 맺음말	30

III. 한국 남성이 경험하는 호주제의 의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적 측면

한 경 혜 33

1. 머리말	33
2. 연구방법	35
3. 조사대상자 특성	36
4. 조사결과	38
1) '정상가족'에 대한 이미지	39
2) 호주승계와 장남됨의 부담	41
3) 이혼·재혼가족의 문제	44
5. 맺음말	49

IV. 호주제 폐지와 노동시장의 변화

김 순 영 53

1. 머리말	53
2.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54
1)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	55
2)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과 여성의 경제활동	58
3. 한국노동시장의 성차별 현실	62
1) 종사상 지위	62
2) 직업별 분포	65
3) 기업규모별 분포	67
4) 임금격차	68
4. 호주제 폐지 후의 과제: 일본의 경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70
5. 맺음말	73

V. 호주제 폐지와 경제생활: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배 은 경 77

1. 머리말	77
2. 소득세제의 중요성과 정책적 쟁점들	81
3. 개인별 과세와 부부재산제도	87
1) 과세단위의 문제	87
2) 부부재산제도와와의 관계	89
4. 소득공제	92
1) 기본공제	93
2) 추가공제	94
5. '세대주'의 지위	95
6. 맺음말	97

VI. 호주제의 한국 복지체계에 대한 영향: 기초생활보장, 모자복지,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김 수 정 99

1. 머리말	99
2. 호주제의 가족범위와 복지관련법의 부양의무	102
1) '세 가지 호주제적 가족'과 사회보장법의 가족	102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와 호주제: '출가한 딸'규정과 '모자가 .. 정'의 복지	105
(1) 이혼한 모자가정의 급여 판정	106
(2) 이혼한 모자가정의 부양의무자	106
(3) 사별한 모자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107
(4) 시부모에 대한 사별한 며느리의 부양의무	108
(5) '출가한 딸'의 부양의무	108
3. 호주제와 사회적 배제: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장	111
1) 저소득 모자 가정의 복지	111

2) 아동복지와 호주제: '소년소녀가장'과 입양	113
4. 가족주의적 복지체제와 호주제	116
5. 맺음말	119

VII. 호주제 폐지와 한국 남성의 삶: 사회생물학적 접근 최 재 천 121

1. 머리말	121
2. 부계혈통주의의 생물학적 모순	122
1) 부계혈통주의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122
2) 자연계의 족보에는 암컷만 기록한다	124
3) 자연계의 혈통은 암컷으로 추적한다	125
4) 부계혈통을 고집할 생물학적 근거가 없다	127
3. 자연계의 성 생물학	128
4. 호주제 폐지 후의 한국 남성의 삶	133
1) 대한민국 남성의 사망률	134
2) 대한민국 남성의 삶의 질	136
3) 성과 젠더: 생물학적 전환	138
5. 맺음말	140

VIII. 결론 143

참고문헌 150